

“교권 4법”으론 역부족... 아동학대법 등 추가 개정해야

전국 교사 7만명 법 개정 요구 서명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불안감 교육활동 보호 위한 특별법 필요 학교폭력 사안, 경찰 이관 요구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7개 시·도교총과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추가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말라며 전국 교사 7만 명이 상이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7개 시·도교총과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추가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예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4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이 지난 13일 중간 집계를 한 결과, 7만4613명의 교사가 서명했다. 특히 전국 1만여 개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서명운동 결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동참 인원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개정 교권 4법과 교권보호종합방안 등의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교원들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고,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없다 보니 ‘아니면 말고’ 식 민원과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권 4법이 교권 회복의 주춧돌이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려야 할 때”라며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시 교육

감 의견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사안은 경찰로 이관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무죄, 무혐의로 종결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요구 사항이다.

정 회장은 “교사는 교육권을 온전히 보호받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회가 다시 응답하길 호소한다”라며 “교총은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총력 입법 관철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국가시험에 토익 인정기간 5년으로 늘린다

공인어학시험 성적 기간 확대
취준생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로 한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왔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청소년 도박 급증... 온·오프라인 예방교육

서울시교육청, 수능 이후부터 실시
신청학교 120여곳 오프라인 교육

서울시교육청이 수능 이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관내 학교별 맞춤형 학생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따라 마련된 이번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실시된다.

오프라인 교육은 관내 초·중·고교 1332곳 중 신청한 학교 120교 내외를 선정해 이뤄진다.

학급·학년·전교생 단위 등 맞춤형 교육으로 이뤄지며 학생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강사 50여명이 학교에 매칭돼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할

용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교사가 도박예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박예방교육치유원의 온라인 학습콘텐츠도 모든 학교에 제공한다.

온라인 콘텐츠는 초·중·고 학교급별로 활용할 수 있는 15개 과정 및 5종의 교사용 지도서를 포함한 에듀라인 콘텐츠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온라인 학습 누리집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 근절을 위해 학교별 맞춤형 학생도박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찰·자치단체·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돈의문2구역 심의 통과... 총 228세대 공급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을지로3가 10지구 재개발도 심의 통과
최고 21층 공동주택, 근린시설 건립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20차 건축위원회에서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을지로3가 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로구 교남동)'을 통해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3개동,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228세대(공공 77세대, 분양 151세대)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또 '을지로3가 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을지로3가)'으로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일대에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김현정 기자 hjk1@

인천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총력'

TF 구성해 차별화된 공모신청서 준비

인천광역시 2025년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인천시는 시의회, 군·구, 유관기관 등 42명이 참여하는 'APEC 인천 유치 지원 TF'를 구성해 체계

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는 물론, 인천 유치의 당위성 강조를 위한 차별화된 공모신청서를 준비하는 등 선제적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청년·대학생·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인천 글로벌 서포터스'의 온라인 홍보 ▲유치 홍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카드 뉴스 제공과 다양한 이벤트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주한 공관장 초청 간담회 및 팸투어 ▲시민(단체)의 릴레이 지지 ▲KT·인천국제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광고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인천시는 국제회의 유치 전문대행사를 선정해 유치 성공 전략 방안 마련에 힘 쏟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외교부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현장실사에 대비해 체계적이고 차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11월 15일 (수)
음력 : 10월 3일

수도권 날씨
2 ~ 1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11 | 해질 / 17:2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터비 K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미국인들, 내년 말 인플레이션 둔화될 것 예상”
▲美 “미중 정상회담서 대만 평화 구상”
...이·팔 교전중단 확대 촉구 /사진 뉴시스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 후 부채 10조원 넘게 증가
▲우크라 지원 발목잡는 헝가리, 자국은 행 ‘전쟁후원자’ 영구 삭제 요구



▲日記시사, 실리콘밸리서 ‘세일즈 외교’...스타트업 등 對日투자 요청
▲日재무상, 올해 최저치로 떨어진 엔저에 “만전의 대응” /사진 뉴시스